

문화산책

강혜경

문학박사



선명했던 기억의 순간도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흐려지고, 어렵게 간직한 감정과 경험의 흔적 역시 서서히 빛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장면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남아 오랜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선명함과 흐려짐이 뒤섞인 기억의 오류와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간다.

이는 인간의 기억이 ‘무한 저장’이 아니라, 불러올 때마다 새롭게 조합되는 재구성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와 정신은 더욱 분명한 방식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 이러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보여준다.

새로운 정보를 접한 뒤 불과 몇 분 만에 기억의 절반을 잊고, 하루가 지나면 그 흔적의 대부분이 희미해진다는 그의 연구는, 기억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감소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래서 공동체는 질문해야 한다. 공동체의 기억을 온전히 유지하는 일은 개인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특히 역사적 진실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온 도시라면 더욱 그렇다. 개별 기억의 한계를 넘어 공동체적 기억을 가능하게 한 힘은 시민들이 함께 판단하고 행동해온 연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다

대의 경험, 즉 집단지성이다. 광주는 바로 그 집단지성의 힘으로 공동체의 기억을 지켜내며 오늘에 이른 도시다.

1980년 5월의 비극과 항쟁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광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원적 기억이다. 국가 폭력 속에서도 시민들은 서로를 지키고, 사실을 기록하며, 진실을 증언함으로써 공동체의 기억을 스스로 구축했다. 5·18은 상처의 기록이 아니라, 광주 시민의 연대·책임·집단지성이 응축된 기억의 형식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어떤 기억도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세대가 바뀌면 과거의 긴박함과 감정의 온도도 자연스럽게 열어진다. 예술은 추상적 기억을 감각과 서사로 바꾸어, 과거의 감정이 오늘의 관객 안에서 다시 호흡하도록 만드는 힘을 갖는다. 그리고 그 우아한 기억의 방식을 가능하게 해온 것이 바로 예술이었다.

이 점에서 최근 공연된 뮤지컬 ‘시민군 윤상원’님을 위한 행진곡’은 공공의 자원이 지역의 역사·인물을 동시대의 예술로 재탄생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범적으로 증명했다. 뮤지컬은 윤상원과 박기순을 영웅으로 신화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흔들리고 고민하면서도 시대의 질문에 응답했던 평범한 인간의 용기를 섬세하게 복원한다. 이는 대본을 쓴 전유호 작가의 생애와 깊이 맞닿아 있다. 실제로 들불야학에서 윤상원·박기순과 함께했고, 5·18 당시 투사회보 제작으로 투옥됐으며, 이후 노래극 ‘넋풀이·빛의 결혼식’ 제작에도 참여한 그는, 현장에서 체득한 기억의 진실성을 글 속에 담아냈다.

정유하 작곡가는 5·18의 정사를 현대적 뮤지컬 문법으로 재해석하며 세대 간 감정의 간극을 우아하게 매웠다. 민중가요의 뿌리를 간직하되 오늘의 관객이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도록 구상한 음악들은, 과거의 감정이 현재

의 몸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작품의 완성도가 창작자 개인의 역량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획·대본·작곡·연출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한 광주문화자산 콘텐츠화제작지원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취였다. 이 제도는 예술가가 지역의 문화자원을 깊이 들여다보고 해석하며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정책적 기반이다.

‘시민군 윤상원-님을 위한 행진곡’은 이러한 제작지원 사업이 왜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작품이다. 광주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갖고 있지만,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시민과 청년 세대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확장하는 체계는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제작지원은 광주를 ‘기억을 보존하는 도시’에서 ‘기억을 창조적으로 재생산하는 문화 도시’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공연의 마지막 장면, 배우와 관객이 함께 부른 ‘님을 위한 행진곡’은 공연의 모든 의미가 집약된 결말이었다. 그 순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기억이 서로를 비추며 만나는 연대의 시간이었다. 무대 위에서 되살아난 그 기억은 잠시나마 우리 모두를 같은 감정의 위에 세우며, 이 도시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창작 공연을 꾸준히 지원하고 도시의 문화적 자산으로 성장시키는 일은 지방정부 시대에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해 콘텐츠로 확장하는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 더 큰 힘을 얻어, ‘시민군 윤상원-님을 위한 행진곡’이 광주를 대표하는 진정한 브랜드 공연으로 오래도록 자리매김하길 응원한다.

사설

광주 ‘반도체 첨단패키징 허브’ 기회 잡았다

광주가 ‘반도체 첨단패키징 허브도시’로 조성된다고 한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광주와 부산·경북 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만드는 내용의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대만의 ‘반도체 클러스터 전국화’처럼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 인프라의 비수도권으로의 확산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즉 남부권의 반도체 기업과 인력을 끌어모아 향후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광주를 ‘반도체 첨단패키징’허브로 집중 육성기로 했다. 광주에 있는 글로벌 패키징 선도 기업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애플 기업과 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연계해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기로 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420억원을 투입, 이를 뒷받침할 ‘첨단패키징 실증센터’를 구축해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기로 했다. 이어 대규모 설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소자 기업과 패키징 기업이 합작해 운영하는 ‘합작패키징 공장’ 광주 설립도 추진기로 했다. 인제 양성은 물론 광주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첨단 패키징 기술’이 AI 구동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기술로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광주가 반도체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첨단패키징 기술의 중심에 설 기회를 잡았다는 얘기다.

이 기술은 얇은 원형의 웨이퍼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자르고 전자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반도체 칩을 한데 모아 성능을 극대화하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후공정 기술이다. 최근 AI기술 발전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성능·저전력 반도체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핵심기술로 제품의 최종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는 이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과 연계해 반도체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광주가 이제 AI와 반도체를 양 날개 삼아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천년고찰 장흥 보림사 비자림 반드시 복원을

보림사(寶林寺)는 통일신라시대인 859년 창건한 고찰로 장흥군 우치면 가지산 계곡에 위치해 있다. 이 사찰은 불교의 한 종파인 선종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와 정착된 곳이다. 조선시대 ‘송유역불정책’으로 쇠락의 길을 걷다 6·25전쟁 때 대부분 소실됐다 이후 복원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천년 고찰이다.

국보 제44호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과 국보 제117호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고 보물 등·서 승탑, 보조선사탑·탑비 등 다수의 보물이 있다. 창건 당시 식재된 것으로 알려진 비자나무는 한때 울창한 숲을 이뤘다는 통설이 있었지만 현재는 사찰 축조용 목재로 사용되고 주변 생태계 변화 등으로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다.

실제로 비자나무는 전북 정읍 내장산 이남의 낮은 산에 서식하는 대표적 남부수종으로, 생장이 느리고 오래 사는데다 조식이 치밀해 최고목재로 꼽힌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이 나무로 만든 바둑판은 최고급으로 여겨 수천 만원에 판매되기도 한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비자나무로 제작한 바둑판을 선물해 화제가 됐다.

전남도가 장흥 보림사의 비자림을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국비 28억원과 지방비 12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총 30ha 규모의 비자림 복원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내년에는 타당성 평가와 실시 설계를 진행한다.

현재 복원 대상지 주변에 참나무류가 대규모 식생하고 있어 비자나무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한 복원 방법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보림사, 문화유산청, 장흥군, 복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부터 복원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1982년 산림유전자원보호법으로 지정된 이곳 비자림에는 현재 630여 그루가 보존되고 있다. 그동안 산림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2년마다 국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 수세가 약한 나무에는 영양을 공급하고, 정상적인 생육을 방해하는 주변 경합목과 위협식물을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해왔다.

이번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천년 고찰의 숲 경관과 역사성을 되살리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기고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가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광주 2공장 화재 사고를 노사가 합심해 조속히 수습해 나가는 가운데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시설 재가동과 신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화재 사고의 파장과 여파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 노사는 흔들림 없이 사고수습에 임하는 것은 물론 공장 조기 재가동을 위한 착실한 준비에 나섬으로써 60여 년 호남을 대표해 온 향토기업다운 자력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위기에 강한 기업의 면모를 지역사회 안팎에 확실히 드러낸 지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특히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7·30 특별합의’를 통해 고용안정을 최우선 실행과제로 확정, 화재피해가 없는 제1공장의 신속한 재가동과 함께 ‘합평 신공장 건설’에 전격 합의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그동안 제조업 사업장에서 보기 드문 위기 대응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공장은 지난 9월부터 제1공장 생산라인을 점점 정비한 후 시험가동을 거쳐 11월14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하루 4000본을 생산체제를 회복했다. 여기에는 화재 사고 이후 휴직 중이던 직원 1800여명 중 4개조 3교대를 편성해 6개월여 만에 다시 일터로 복귀하여

금호타이어 ‘합평 신공장 건설’에 기대 크다

생산 현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합평 신공장 건설’도 탄력을 받고 있어 연말 산업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광주공장 부지를 매각하여 합평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수습을 계기로 ‘합평 신공장 건설’(New Plant Project)로 방향과 개념을 전환해 광주 1공장 재가동과 함께 새 공장을 합평에 짓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금호타이어의 과감한 경영적 결단은 광주시·전남도민의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로서 더욱 큰 기대를 낳게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금호타이어 ‘합평 신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유치 협약식(MOU)’이 지난 12월 9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려 그 첫발을 내디뎠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 이상의 합평군수,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등 자치단체 관계자와 금호타이어 임직원 등이 참석해 역사적인 첫 단추를 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합평군은 금호타이어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행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금호타이어 역시 ‘합평 신공장 건설’을 위해 1단계로 6609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간 타이어 530만본 생산과 정원고무 700만본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최혁신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미래형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스마트 제조설비 및 친환경 공정을

갖춘 공장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2027년까지 연간 530만본 생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2028년부터 본 가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후 진행될 2단계 추가 건설을 통해 최종 연간 1000만본 생산 규모의 합평 신공장을 완공할 복안을 갖고 있다.

금호타이어 ‘합평 신공장 건설’은 광주·전남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의 기관차로 벌써부터 지역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합평군은 친환경 엔지니어링 금호타이어 합평공장을 통해 빛그린산단이 초광역 K-모빌리티의 중심산단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미래핵심정책비전’을 이미 발표했다. 광주의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가 빛그린산단 합평구역까지 확대되면서 지역에 발생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긍정적 시그널로 내다보고 있다.

더 나아가 RE100산단, 일자리, 정주여건까지 모두 담은 ‘전남형 그린 디지털 도시’도 꿈꾸고 있다고 한다.

금호타이어뿐만 아니라 미래차 부품, 데이터센터 입지 원과 가족이 정착할 ‘주거·교육·문화 복합지구’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도 더불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금호타이어는 화재 사고의 아픔을 딛고 ‘합평 신공장 시대’의 포문을 활짝 열었다. 금호타이어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 자체 수습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등 노력해 왔다. 더불어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우리 광주·전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물론 위기를 딛고 지역경제 견인차로 금호타이어가 제도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여기에 ‘전공 및 관심 분야 일자리 부족’과 ‘신입 채용 감소’ 같은 응답이 이어진다는 점은 노동시장 전반의 기회 자체가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개선 과제로 ‘기업 고용여건 개선’이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기업들은 규제 강화와 비용 부담 증가 속에서 신규채용 여력을 잃어가고 있고 청년들은 그 영향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결국 청년 취업난은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산업·규제·채용 환경 전반을 조정해야 풀릴 문제라는 점에서 답이 명확해진다.

이번 조사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소극적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준다.

그들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지원해도 잘 되지 않는 구조’이고 ‘기회 자체가 희박해지는 시장’이다. 청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는 자기계발이 아닌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이다. 정책의 방향도 그 지점을 향해야 한다.

취재수첩

취준생 ‘소극적 구직자 60%’의 경고음

송대웅

경제부 차장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는 청년 고용의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구직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이지만 수치 하나하나가 청년들이 마주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취업난’이라는 익숙한 단어가 실제로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 준다.

조사에서 대학생 10명 중 6명이 스스로를 ‘소극적 구직자’로 분류했다는 결과는 무겁게 다가온다. 이는 단순히 의지가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직 과정 전반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를 청년들이 학습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입사 지원을 늘려도 합격률은 더 낮아지고, 준비 기간은 길어지는데 기회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청년들은 구직을 ‘의례적 절차’로 받아들이는 현실이다.

더 눈에 띄는 지점은 소극적 구직의 가장 큰 원인을 ‘역량·기술·지식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층 스스로가 자신의 경쟁력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고도화된 산업 변화에 교육과 직업훈련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는 설 실 370-7200		
	경 제 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사 회 부 370-7030	총 무 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독자관리국 370-7080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